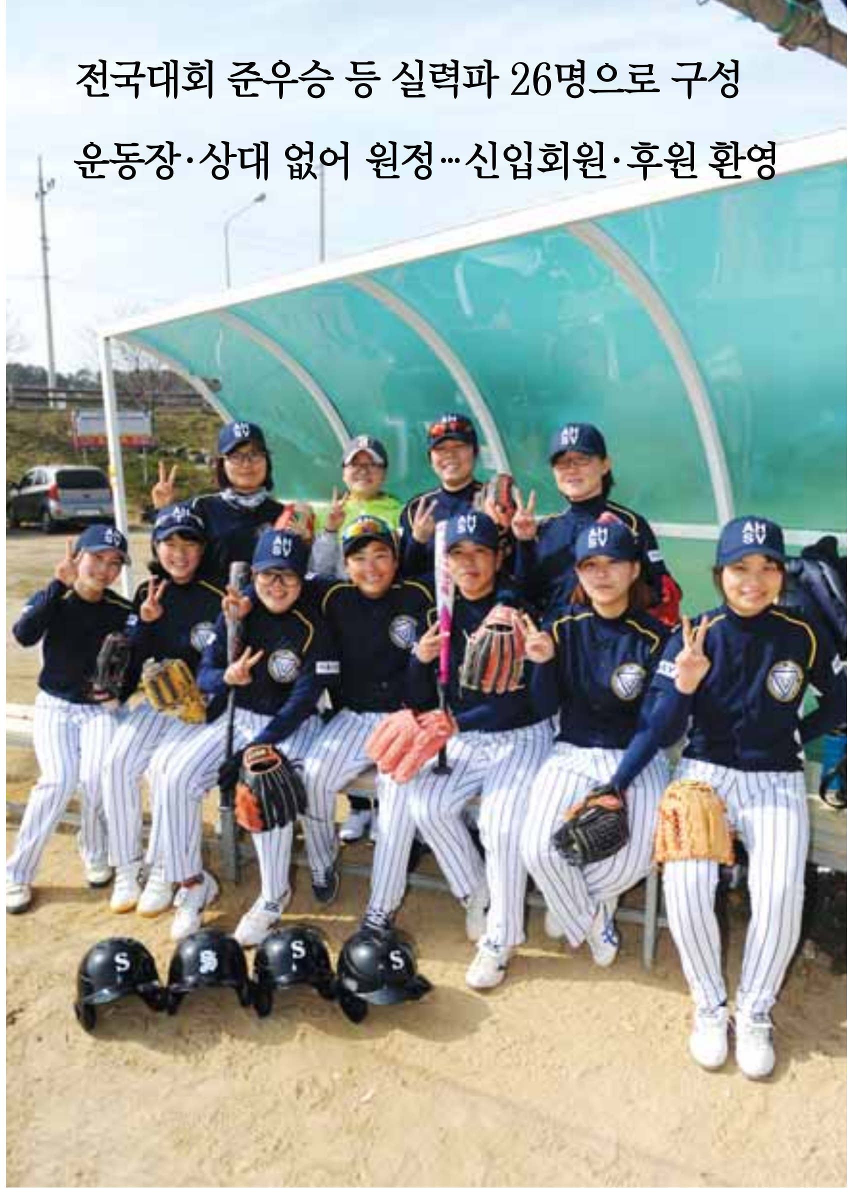
# "인프라 좋아지면 여성 야구인 늘어나겠죠"

## 광주 유일 여성야구팀 '스윙이글스'

### 전국대회 준우승 등 실력파 26명으로 구성

### 운동장·상대 없어 원정…신입회원·후원 환영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첨단종합운동단지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연습하는 스윙이글스 선수들. 연습 때면 흙먼지를 뒤집어 써야 하는 이들은 부상 걱정없이 뛸 수 있는 야구장에서 훈련하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광주보훈병원 앞 영산강변 첨단종합운동단지.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7도까지 오른 지난 8일, 겨우네 숨죽이고 있던 따사로운 햇살이 수줍게 나타나자 강변은 산책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이곳에서 야구배트를 힘껏 휘두르는 선수들에게 다가가자 고운 목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잠시 후 선수들이 햇빛을 가리는 마스크를 벗자 상기된 표정의 예쁜 얼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창단 10주년을 맞는 광주 유일의 여성야구팀 '스윙이글스'입니다."

지난 2005년 창단된 스윙이글스는 한국여자야구연맹에 등록된 광주 유일 여성야구팀이다. 박경진(37) 감독과 조경아(35) 주장 등 선수 15명과 후보 선수 11명까지 모두 26명이 소속된 스윙이글스는 광주를 대표하는 여성야구단이다. 혈기 왕성한 스무 살 대학 새내기 최영현 씨부터 풍부한 경험으로 팀을 이끄는 맏언니 박경진 감독까지 평균연령 28세인 '스윙이글스' 선수들은 지난 2011년 전국여자야구대회 준우승을 일궈낸 실력파들이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여성야구팀과 15경기를 치른 결과 9승 6패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도 얻었다. 햇볕 아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 피부가 그을리지 않을까 한창 걱정할 20대 나이.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훈련이 우선이었다. 스윙이글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박한결(26)씨도 마찬가지였다.

"야구를 좋아하는 아버지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무등경기장에 다녔어요. 자연스럽게 야구를 좋아하게 됐고, 이제는 야구 없는 삶을 생각할 수도 없게 됐어요. 팀원들과 즐겁게 땀 흘릴 수 있으면 햇볕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입단할 수 있는 스무 살이 되자마자 스윙이글스 일원이 된 그녀는 포수를 맡으며 팀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걸어둘 신입회원 모집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포토샵을 직접 배울 정도로 열정 가득한 그녀지만 요즘 걱정이 많다. 스윙이글스를 이끌어 나갈 새내기 발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한 달간 신입회원을 모집했지만 1명을 충원하는데 그쳤다. 고등학생 때부터 입단을 약속했던 최영현 씨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회원모집이 실패했을지도 모르는 상황. 주장 조경아(35)씨는 '타이거즈'의 고향 광주에서 여성 야구인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타이거즈 부진이 야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설명과 함께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구가 좋아 스윙이글스에 들어온 멤버들도 엄마가 되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선수들이 야구 하는 동안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야구장을 사용하는 것도 남자 선수들을 우선하기 때문에 여성팀이 활동하는 것은 제약이 많아요."

한국여자야구연맹에 등록된 전국 여성야구팀은 40여 개. 광주에는 스윙이글스, 전남에는 고흥 리더스가 유일하다. 여성야구팀이 없다 보니 정식 야구경기를 위해서는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다녀야 한다. 대회 참가비와 교통비, 식비 모두가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살림은 언제나 빠듯하다. 그럼에도 배트와 글러브를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이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남성들이 특별하지 않듯이 자신들은 야구를 좋아하는 평범한 여성들이라고 소개했다. 쇼핑과 수다를 좋아하는 여성이 있듯이 야구를 직접 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으로 구성된 스윙이글스는 야구 이외에도 탁구와 볼링을 즐기며 자신들을 '주말가족'이라고 불렀다. 최근 지역기업 보해로부터 후원을 약속받은 스윙이글스는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 여성야구팬만 늘릴 게 아니라 여성야구선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타이거즈가 좋은 성적을 기록해 여성팬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성 야구인이 많다는 것은 운동하기 좋은 환경임을 뜻하고 이것이 바로 타이거즈와 광주를 위한 길이잖아요."

관련 소식은 다음카페에서 '스윙이글스'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글·사진=양세열기자 hot@

## 영산강·섬진강 물상생 협의회 발족

한국수자원공사 등 지역 내 물 관련 유관기관과 NGO,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영산강·섬진강 물상생 협의회'가 발족했다.

9일 영산강·섬진강 물상생 협의회(의장 현고스님·사진)은 지난 5일 수자원공사 전남본부 회의실에서 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유관기관 등 20여명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는 영산강·섬진강 유역 내 수자원관리의 방향제시와 장래 물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시작으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 및 수자원 이용에 관한 중재기구 도입 등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발족식 참석자들은 영산강 유역은 상류에 다목적댐이 없는 유일한 수계이고 섬진강 유역은 타 유역으로 물이동에 따른 하류 유량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올해가 통합물관리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해로 영산강·섬진강의 물현안을 재조명하고 물이용의 효율성·지속성·공평성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 14일 '세계 뇌 주간' 공개강좌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단장 이건호·조선대 의생명과학과 교수·사진)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세계 뇌 주간'을 맞아 공개강좌를 연다.

이 공개강좌는 한국 뇌 연구협회와 한국 뇌 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14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진행되는 공개강좌 중 하나다.

조선대 서은현 교수가 '뇌과학으로 만나는 기억', 조선대 추일한 교수가 '뇌와 치매', 조선대 이건호 교수가 '한국인 뇌 지도와 치매 조기 경보시스템', GIST 박우진 교수가 '치매 치료제 개발 : 실패와 도전'을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참여자에게는 세계 뇌 주간 프로그램 이수증도 주어진다.

뇌 주간 행사는 일반인에게 뇌 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1996년 미국에서 처음 열린 뒤, 현재 60여개국에서 매년 3월 셋째 주에 동시에 진행된다.

/채희종기자 chae@

## 탄소 중립도시 에코그린 광주 서구 '최우수' 선정

광주시 서구(구청장 임우진·사진)는 9일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탄소 중립도시 에코 그린(Eco-Green) 정책평가'에서 최우수구(區)로 선정돼 1억75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정책평가는 지난해 추진했던 실적을 쓰레기 감량, 재활용 증대, 도시 청결 등 5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나눠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 김형호기자 khh@

## 광주희망원, 전국 사회복지시설 최우수 기관

광주시립 광주희망원(원장 김용권·사진)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4년도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매 3년마다 진행되는 전국 규모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지표로 이루어졌다.

김용권 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광주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이 더해져 얻어낸 값진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사회복지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매진할 것"임을 다짐했다. /양세열기자 hot@

## 임정섭 한영대 총장 취임

여수 학교법인 봉헌학원 한영대학 제4대 총장에 임정섭(55) 교수가 취임했다.

임 신임 총장은 9일 교수세미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신뢰·열성·창의적 사고 등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회와 소통하는 지역인재 육성을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전하는 대학, 변화하는 대학, 창조하는 대학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한영대학이 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 총장은 여수 출신으로 조선대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3년 한영대학 개교와 함께 조교수로 부임해 학생처장, 생활지도연구소장, 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중국팀 초청 훈련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 핸드볼팀은 최근 중국 상하이시 체육국 소속 여자핸드볼팀을 광주로 초청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도시공사 제공〉

## 조선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 워크숍

조선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센터장 문경래 조선대병원장)가 최근 조선대병원 하종현홀에서 의료서비스 향상과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동 조사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조선대병원 제공〉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 화촉

▲이재득(전 새정치민주당 광주 광산을 지구당 부위원장)·김귀목씨 차남 성호군 오정길·김덕례씨 차녀 은영양=14일(토) 오후 1시30분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2층 라벤더홀.

▲노용섭·최점분씨 차남 수훈군 고흥석(광주일보 우산지국장)·허현남씨 장녀 세영양=14일(토) 오후 1시 충남 공주시 리버스 컨벤션 2층 아모리스홀.

▲어연화씨 장남 황국일군 김연호·송연자씨 장녀 희정(광주일보 총무부)양=15일(일) 오후 1시 광주 아름다운컨벤션 1층 티파니홀.

▲김내환·이정애씨 장남 성현(나로도 청소년수련장)군 윤영경·서달성씨 주원(광주일보 총무부)양=21일(토) 오후 1시 50분 순천 탑웨딩홀 1층 다이아몬드홀 061-751-9500.

## 종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이화회(회장 이송암)월례회의=10일(화) 오후 6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나주 정씨 호남종친회(회장 정우화) 제 33회 정기총회=13일(금) 오전 11시 광주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3층 062-366-4669.

▲선산 김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김성기)정기총회=14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풍암동 다미정 010-9877-6166.

## 알림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 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후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학교근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목욕=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 모집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미료·언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길라잡이 프로그램 회원=(베이비 마사지, 요리만들기, 육아용품 만들기, 육아상식교육, 자조모임 등),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초·중급반 한국어 교육) 회원 모집 062-267-3700.

▲성모사랑 노인방문요양 센터 회원=고령, 노인성질환(치매·중중·노환), 취사, 청소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 기타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가능 062-385-3678.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손님용 독방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광주국제교류센터 062-226-2734.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101호 故김야순 님(여/59세)
子/子婦 : 김해봉/최순라
男便 : 김동남 孫 : 김유진
• 발 인 : 3월 10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5

102호 故문상훈 님(남/44세)
兄弟 : 문영훈, 문경훈, 문현숙, 문현정
• 발 인 : 3월 10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6

201호 故양태승 님(남/86세)
子/子婦 : 양동관/황혜숙, 양동일/용혜림
女/壻 : 양현이/이오승, 양연화/박윤주, 양연희/송호기
未亡人 : 민소내
• 발 인 : 3월 10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1

301호 故배인규 님(남/100세)
子/子婦 : 배영남/손영희, 배의구/이금자, 배 실/한수련, 배성식
女/壻 : 배금숙/최태협
• 발 인 : 3월 10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2

401호 故윤영상 님(남/38세)
兄弟 : 윤등관, 윤현태, 윤은주
母 : 박소자
• 발 인 : 3월 10일
• 장 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27-4383

402호 故박승찬 님(남/63세)
子 : 박동희, 박성범
女 : 박혜영 未亡人 : 오금숙
• 발 인 : 3월 10일
• 장 지 : 나주 왕곡 선영 • 연락처 : 227-4314

孝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 의 (062)227-4000

## 부음

▲방기순씨 별세 이복근·찬경·해붕·해운·정순·정희씨 모친상=발인 11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고순례씨 별세 백연성·대성·국성·상진씨 모친상=발인 11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이복희씨 별세 전재섭·재홍·재향·재광·명순·명숙씨 모친상=발인 11일(수)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